

베일에 싸인 생체에너지 오라(Aura)의 실체

오라Aura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Oneness의 빛

인간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빛을 발하는 에너지 장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오라(Aura)라고 한다. 오라는 일반적인 광학의 법칙에 따르지 않으며, 광속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서 공간을 전파하는 성질이 있다. 즉 시공(時空)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라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라의 빛깔을 통해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한다.



◀◀ 한쪽이 잘려진 장미꽃잎이 여전히 전체적인 오라를 발산하고 있다. 이러한 팬텀오라(Fantom aura)는 약 15분간 지속된다.

◀ 오라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각기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며 마음이 바뀌면 오라의 색깔도 바뀐다.

- 흰색_ 영적 행로확대, 육체에서 벗어남
- 황금색_ 용서, 기쁨, 자유, 자비
- 빨강_ 정열, 생명력, 육체적 활동
- 주황_ 창조적, 예술적, 명량, 감각적
- 노랑_ 햇빛, 유연성, 낙천적, 독창적
- 녹색_ 치유, 카운셀링, 인내, 조화, 자긍심
- 파랑_ 통일, 평화, 은총, 교감, 영적인 사랑
- 남색_ 깨달음, 통찰력, 투시력, 영적인 계시
- 보라_ 신비, 깊은 영적 통찰, 영적지도자

흙에서는 흙냄새가 난다. 이는 다름 아닌 물질 자체의 원소가 붕괴되어 떨어져 나오면서 그 입자가 후각에 와 닿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다. 갓난 아이에게 젖내가 나고 중병에 걸린 사람에게 쉰 피로 말미암아 쉰 냄새가 난다. 또한 화를 내는 사람 입에서는 단내가 나며 노인들에게서는 노인 특유의 냄새가 난다. 이것도 물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사람의 생각의 물질이 방출되어 후각을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이 냄새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음을 아주 강하게 품었을 때 뿐이며 대개의 경우는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좀더 영적 차원이 올라간 사람의 경우에는 냄새로 상대방의 미묘한 마음까지도 알아차릴 수 있다.

구세주 조희성님의 말씀을 예로 들면, 도둑질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서는 시커먼 장마구름 같은 것이 몽게 몽게 피어나면서 구름내 같은 고약한 냄새가 풍긴다고 하시며 그리고 음란한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서는 노르스름한 안개와 같은 물질이 나오는데, 그 몸에서는 뱀냄새 같은 비린내가 난다고 하신다.

여기에서 시커먼 장마 구름이라든지 노르스름한 안개와 같은 것이 바로 그러한 마음을 먹고 있을 때 방출되는 일종의 '오라'이다. 즉 후각을 자극하는 냄새와 달리 오라는 생각이라는 물질이 빛에너지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이 바뀌면 냄새 뿐 아니라 오라도 바뀐다.

피가 곧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흔히 혈액형에 따라 일정한 성격이 있음은 인정한다. 사실 피의 성향이 마음의 성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동일한 혈액에 유사한 성격 경향이 있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이것은 오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용서와 자비의 마음을 강하게 품고 있으면 황금색의 오라가 나온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적갈색의 오라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이 그러하다.

성경이건 불경이건 모든 종교의 경전은 서로 다른 두 신(神) 혹은 두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하나는 어둠의 신이며 분열과 죽음의 신인 마귀(마군)며, 다른 하나는 빛의 신이요, 통일과 질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신인 하나님(부처님)이다. 그렇다면 죽음과는 완전히 별개인 빛에너지인 오라는 무엇일까? 당연히 하나님의 신이다.

여기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Oneness)'이라는 용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이말로 '오라'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절한 말이기 때문이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학문과 종교를 초월한 단어이다. 말 그대로 인류 전체, 나아가 온 우주 만물 속에 공통적으로 깃들여 있는 유일무이한 단 '하나의 존재를 지칭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얼음과 수증기를 비교해봤을 때, 하나는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볼 수 없지만 동일한 원소 H2O로 이루어져 있듯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 또한 하나님의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오라에 오라는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존재하는, 온 우주 전체에 생명력을 부여하고 있는 하나님의 빛인 것이다.*

성숙한 상태의 전자기장이 방출된 것이다.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고 있는 오라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식물 묘목의 싹에서 발생한 전자기장이나 태아에게서 방출된 전자기장은 모두 오라이다. 요약하면 동양에서의 기(氣)가 과학적인 용어로는 전자기적 생체에너지요, 유럽이나 남미에서는 오라(Aura) 혹은 오르곤(Orgon)으로, 힌두나 요가에서는 프라나(Prana)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방의 고전 『황제내경(皇帝內經)』에는 "경락이 의(意)를 간직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경락을 따라 흐르는 것이 기(氣) 즉 마음이라는 것을 말한다. 김봉환에 따르면 혈관 안팎에 경락이 있음이 확인된 바, 그러므로 혈관 속 경락을 따라 흐르는 마음의 작용이 혈액의 작용과 무관하지 않을 것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혈액은 인체를 구성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하며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물질이다. 사실 사람의 몸은 100% 혈액으로써 조성되므로 혈액은 곧 인간의 생명 그 자체라고 해도 될 것이다. 성경에서도 이와 관련된 구절을 찾아 볼 수 있는데, 창세기 9:4. 레위기 17:11, 신명기 12:23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요점은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인데 사실 피는 생명일 뿐 아니라 동시에 '마음'이기도 하다.

피가 곧 마음이라고 하면 생소하게 들릴 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예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동양에서는 거의 무의식적으로 알고 일상에 적용해왔으며 기독교의 세계관이 지배적이었던 서양에서도 심심찮게 논의된 내용이다. 17C 생리학자인 갈레노스는 피 속에 영(靈)이 가득차 있음을 말했다고 (피의 순환이론)을 제창한 윌리엄 해비 역시 피를 영적인 액체이며 생명의 원리라고 하였다.

사실 피가 모이는 장소를 피주머니(血囊)라고 하지 않고 마음

주머니(心臍)라 부르는 것도 우연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옛날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피'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 같다.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도 (heart)라는 단어는 '심장'과 '마음'이라는 뜻으로 동시에 쓰이고 있지 않은가.

또 사고로 인해 많은 피를 수혈받은 사람이 갑자기 성격이 변하거나 분명히 동일한 혈액형의 피를 수혈받았는데 불구하고 쇼크로 죽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피가 마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같은 혈액형이라 하더라도 그 피의 혼탁함의 정도에 따라 즉서로 차원이 다른 혈액(마음)이 갑자기 섞일 경우 충동을 일으키며 혈구들이 파괴되어 얼마든지 쇼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피가 곧 마음이라는 전제는 '물질이 곧 신'이요, '육이 곧 영'이라는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 얼음과 수증기가 H2O로서 동일하듯이 밀도에 따른 상태가 틀릴 뿐 구성 물질 자체는 정확히 같다. 그러므로 밀도에 따른 상태를 무시하면 '100% 피로 조성된 인간은 100% 마음 그 자체'이다. 현대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람'이란 존재는 에너지가 육안으로 보기 좋을 만큼 혹은 접촉하기 쉬울만큼 치밀한 간격으로 모여있는 것일 뿐이다.

다만 마음은 물질과는 달리 자유로운 에너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든 물질은 마음이며, 모든 마음 또한 눈에 보이지 않거나 보이지 않음 물질이다. 그러므로 요즘 흔히 거론되고 있는 심신상관학은 조금 모자란(?) 학문이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물질이나 마음이 모두 에너지의 한 형태임을 살펴본 것이다. 그렇다면 빛에너지인 '오라'는 과연 무엇일까? 쇠의 냄새를 맡아 보면 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고무에서는 고무 냄새가 나며,

오라가 방출되는 부위는 '경혈'과 정확히 일치
오라는 동양의학의 '기(氣)', 힌두나 요가의 '프라나'를 지칭
혈관 안팎에 경락이 있으며 경락은 의(意)를 간직
오라는 생각의 물질이 빛에너지 형태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것
오라는 생명의 신(神)인 하나님의 빛

전세계에 알리는 진짜 경전 이야기 33회

전 세계여 모두 깨어나자!

< 끝없는 인내로써 구원이 보장 된다 2회 >

마귀의 약점은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1. 이긴자가 겨저 뒤이 아니요, 이 마귀는 짐오하게 참고 견디면 못 견디는 것이다.
2. 마귀의 영은 인내심이 없는 것이다. 바로 마귀 신의 약점이 인내심이 없다는 것이다.
3. 죄가 많을수록 인내심이 없고, 죄가 없을수록 인내심이 강한 것이다.
4. 그러므로 끝까지 참고, 견디고, 또 참고, 견디면 있어야 그 마귀는 손을 번쩍 들고 멸함을 당하는 것이다.
5. 그러므로 이제 그대로 마귀를 이기고 나니 마귀의 소유를 모두 빼앗게 되었다.
6. 승자가 패자의 소유를 다 갖게 되는 것 같이 마귀의 지혜와 총명을 다 알게 되었고, 소유하게 되었다.
7. 인내와 견딤으로 이겼다.
8. 인내와 견딤으로 마귀의 지혜와 총명을 소유하게 되었고, 이제는 마귀의 계교를 알고 있는 고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9. 그러므로 긴긴 세월을 두고, 견디고 참는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긴긴 세월을 울고불고 다녔던 것이다.
10. 아무리 은혜를 간직하려고 해도 간교한 마귀는 옆구리를 찔렀다가, 머리를 찔렀다가, 다리를 찔렀다가,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마귀의 계속된 공격이 있었다.

11. 그러한 계속된 공격으로 말미암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백전백패, 천전천패, 만전만패를 당하는 중에서도 그 영의 싸움에 도전을 하면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고로, 두 다리를 쪽 뺀고 울고, 또 울고 어린 아이 마냥 홀로 독방에서 울었으며, 항상 통곡이 그칠 날이 없었던 것이다.

만전 만패에도 인내로 좌절하지 않았다

1. 이와 같이 울면서도 이사람은 한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2. 이와 같이 도전을 하면 마귀가 넘어뜨리고, 또 넘어뜨리고 넘어뜨리는고로 밤잠을 안 자며 때때때 굴 구르며 곤두박질치고 울면 마귀는 갈갈대며 비웃고 조롱했던 것이다.
3. 그러나 이사람은 만전만패, 역전역패를 당하면서도 한 번도 좌절하지 않았다. 또 견디고 또 참고 마귀의 수법과 마귀의 전략을 완전히 파악을 하는 데 이르렀다.
4. 그러므로 오랜 세월 마귀가 자기의 전법 전략을 다 사용하고 나니 그 마귀의 밑천이 드러난 것이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을 잡은 것이다.
5. 이것이 바로 인내에서 왔다. 참고 견디는 가운데 마귀의 비밀을 완전히 캐냈다.

Real Scripture Stories to Tell the World—Episode 33

All over the world! Let All Wake Up!

< Salvation is guaranteed through endless patience - Part 2 >

The weak point of Satan is endurance

- 1 To become a Victor is not easy. Satan cannot stand in front of a person who is persistently enduring.
- 2 The spirit of Satan has no endurance. The weakest point of Satan is endurance.
- 3 The more sin, the less endurance, the less sin, the more endurance.
- 4 So, enduring should be continued to the end, when Satan surrenders and is destroyed.
- 5 Therefore, after defeating Satan, This Man snatched all the possession of Satan.
- 6 Like the winner snatched all the possession of loser, This Man knew the wisdom and brightness of Satan and possessed them.
- 7 This Man beat Satan with endurance and standing.
- 8 This Man possessed the wisdom and brightness of Satan through endurance and standing. As This Man now knows the trick of Satan, I am not cheated by Satan at all.
9. Therefore, you should stand and endure for a long time as This Man endured, crying, for a long time.
- 10 The more This Man tried to keep grace and in

order to make This Man lose grace the cunning Satan repeatedly tested and attacked Him everyway.

11. Whenever This Man fell and was defeated, He challenged the spiritual fighting again and even fell again. There were no days without crying.

This Man had patience and so was never frustrated

1. With patience, This Man was never frustrated, even though He cried a lot.
2. If This Man challenged Satan, the Satan defeated This Man again and again. Then This Man cried all night, and the Satan laughed and mocked This Man.
3. But This Man was never frustrated, even though there were many defeats. Finally, by standing and enduring, He reached a complete understanding of Satan's strategy and tricks.
4. The Satan has used His strategy for a long time, so all his tools have been revealed to This Man. This Man has settled for victory.
5. This comes from endurance. This Man has found out the secret completely.*

by Hana